

《생일》 《축복》(영미시선집)

#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벚꽃 사이에서

장영희 교수의 영미시 선집 《생일》과 《축복》에서 눈길을 돌려 문득 버스 차창 밖을 보노라니, 성긴 눈발이 바람에 휘날린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눈이 내리지? 4월 중순에도 눈이 내리던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눈길을 들어 길 저편을 바라보니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단장한 나무, 나무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들에 흘러 잠시 시간의 흐름을 잊었구나. 아니,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한 것이 벚꽃 잎들이겠는가. 꽃처럼 아름다운 책에 담긴 꽃잎처럼 아름다운 시들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벚꽃 잎들을 눈송이로 볼 수 있었겠는가.

글\_장경렬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두 권의 시집 《생일》과 《축복》은 장 교수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영미시 산책’이라는 칼럼의 원고를 책으로 묶어 낸 것이다. 물론 두 시집은 단순히 장 교수가 선정한 아름다운 시들과 그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시 읽기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색채의 조화가 환상적인 김점선 씨의 아름다운 그림이 두 책의 가치를 더해 주고 있거니와, 이렇게 해서 김점선 씨 자신의 말대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들이 되었다.

## 시에 대한 갈증 풀어 주는 시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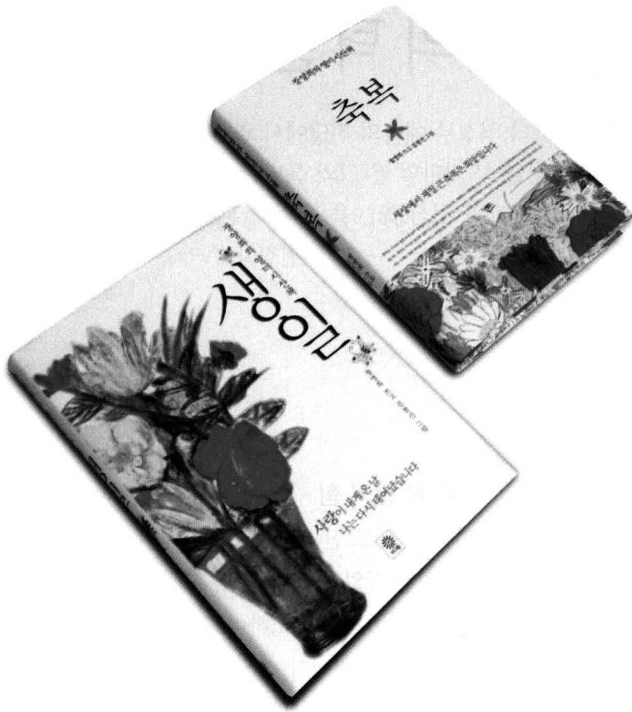
나의 학창 시절에도 다행히 《생일》이나 《축복》과 같은 시집이 있었다. 그것은 이재호 교수 편인 《장미와 나이팅게일》(1971)로, 여기에는 100여 편의 영미시가 수록되어 있었다. 삽화와 사진을 곁들인 이 시집을 내가 입수한 것은 1970년 초엽의 일로, 시집에 담긴 모든 시를 외우겠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 시집을 사랑했다. 아직도 나는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의 상당 부분을 때때로 읊조리곤 한다. 그릴 만큼 오랫동안 나의 손을 타다 보니 이 시집은 오래 전에 앞뒤 표지마저 떨어져 나가 너털너털한 상태다. 이 너털너털한 시집에 대한 나의 애정만큼은 여전하다.

하지만 《장미와 나이팅게일》은 편집, 장정, 조판 등등의 면에서 40여 년 전의 나에게 주었던 만큼의 감동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주기는 어렵다. 그들의 취향뿐만 아니라

감수성까지 고려한 영미시 선집이 오늘날 새롭게 출간되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이를 감지한 듯 장 교수는 아름다운 시집 두 권을 우리에게 선사한 것이다. 바라건대, 읽고 외울 만큼 좋은 시에 대한 젊은이들의 갈증이 이 두 권의 시집으로 풀리길! 아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필자와 같은 나이의 사람에게도 이 시집은 아름다운 시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장 교수의 정감 어린 따뜻한 시 읽기는 예민한 감성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감성이 무디어진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두 시집 가운데 먼저 출간된 《생일》의 제목은 이 시집의 시작 부분을 장식하는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생일〉이라는 시에서 나온 것이다. 시를 통해 로제티는 말한다. 사랑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날이 바로 “내 삶이 시작”된 “생일”이라고. 그 날을 맞이한 시인의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생생하게 집히는 이 시에 대한 시 읽기에서 장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다시 한 번 태어나고픈 소망을 가져” 본다고. 어찌 이런 소망이 장 교수만의 것이라. 《생일》과 같은 시를 “누군가 내게 불쑥 내미는 화려한 꽃다발 같은 시”라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에 담을 만한 소망 이리라.

이어지는 시는 사랑의 아픔을 체험한 젊은이의 노래인 A. E. 하우스먼의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였을 때〉다. “스물하고 하나”의 나이일 적에는 몰랐던 사랑의 아픔을 “스물하고 둘”의 나이가 되어 깨닫게 된 시인의 마음을 전하



는 이 시를 읽는 자리에서 장 교수는 하우스먼 자신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시 쓰기란 “상처받은 진주조개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분비 작용을 하여 진주를 만드는 일”이라고. 그리고 말한다. “사랑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영혼의 진주를 만들고 진정 아름다운 삶의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아픔이 없다면 어찌 우리네 삶이 삶다운 것일 수 있겠는가. 아니, 아픔을 주는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네 삶이 삶다운 것일 수 있겠는가.

첫 시집의 주제가 사랑이라면, 둘째 시집의 주제는 희망이다. 하지만 첫 시집의 제목이 ‘사랑’이 아니듯, 둘째 시집의 제목도 ‘희망’이 아니다. 장 교수에 의하면, 시집 제목을 놓고 고심하던 중 어떤 재소자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말을 통해 “희망도 축복”임을 “불현듯” 깨달았다는 것이다. 시집의 제목이 “축복”이 된 연유는 여기에 있다.

이 둘째 시집은 희망을 노래한 에밀리 디킨슨의 시로 시작된다. <희망은 한 마리 새>라는 제목의 시에서 디킨슨은 노래한다. “아무리 심한 폭풍도 /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이 희망에 대한 장 교수의 시 읽기는 시 자체만큼이나 아름답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나오듯, 죽은 가지에 새순이 돌아나듯, 희망은 절로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희망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신이 내리신 축복”이 아니겠는가.

## 시마다 전해지는 ‘사랑’과 ‘희망’

시 선정과 시 읽기, 모든 면에서 장 교수의 따뜻한 마음이 넓고 깊게 입혀지는 두 권의 시집을 읽어 나가며 필자는 나름대로 주석을 덧붙여 보기도 한다. 예컨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술 노래에 대해 장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술 한 잔 마시는 것, 그것이 야말로 우리가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라고. 장 교수의 말은 이어진다. “사랑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 아! 멋진 인생입니다”라고. 하지만 이 같은 시 읽기만으로는 애석하게도 “그대 보고 한숨 짓네”라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담긴 미묘함을 다 설명할 길이 없다. 예이츠는 20대의 나이에 모드 곤이라는 여성에게 사랑을 호소했으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에 미망인이 된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호소했으나 여전히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50대가 되어 그녀의 딸에게까지 사랑을 호소했으나 여전히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질기고도 오랜 사랑의 아픔이 그에게 “한숨”을 짓게 한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마음에 남긴 상처가 그에게 허용한 것, 술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에게 사랑이 허용한 단 하나의 것, 그것은 바로 “한숨”이었다.

시집을 처음 받아 읽기 시작할 무렵 세상을 환하게 하던 벚꽃들이 어제 내린 비를 이기지 못하고 거의 모두 졌다. 처연하게 떨어져 누운 꽃잎들을 보며, 자신의 화사함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듯 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던 꽃잎들에 대한 기억을 새삼 떠올린다. 하지만 꽃잎을 대신하여 나무들은 푸른 잎들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꽃잎이 화사하지만 아픈 사랑의 기억을 일깨우듯, 푸른 잎들이 일깨우는 것은 바로 싱그러운 희망과 축복이 아니겠는가. 아름답고 화사한 두 권의 시집 <생일>과 <축복>이 모든 이에게 사랑의 꽃잎들의 모음인 동시에 희망과 축복의 푸른 잎들의 모음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장정렬님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미로에서 길 찾기> <신비의 거울을 찾아서> <코올리지: 상상력과 언어> 등의 저서가 있다.